

영생장로교회 2020년 10월 구역공과

* 제목: 주의 옷자락 만지며

* 본문: 마가복음 5:25-34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쇼핑센터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쳐 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문명이 극에 달할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공허함은 더 깊어 가고 우리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 곳 저 곳 기웃거리면서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본론: 본문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으로,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한 병이라고 하여 환자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해야 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동안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26)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지므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혈루증 환자인 여인의 병이 낫자 주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누가 그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자기 옷을 만졌는지를 굳이 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자 그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실토했고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토의질문:

1.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므로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28)
2. 여인의 혈루병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히브리서 11:6)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어려운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